

전주대 - 지역교회, '캠퍼스 선교' 가족교회 협약 체결

지역 59개 교회, 캠퍼스 선교·선교 동아리 활성화 위해 한마음 한뜻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최근 대학본관에서 갈산온혜교회 등 전북지역 59개 교회와 가족교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주샘물교회 서화평 담임목사, 전주산광교회 이순태 담임목사, 전주학년교회 강순 담임목사 등 59개 지역교회의 담임목사와 전주대 이호인 총장, 양병선 부총장, 백삼윤 기획처장 등 전주대 관계자 1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족교회는 전주대에서 자유롭게 캠퍼스 선교 및 선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 1회 이상 전주대를 위한 캠퍼스 선교주간을 지정하여 협신예배와 기도회를 갖게 된다.

협약식 이후에는 가족교회의 발전기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지역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모은 후원금이 2,000만원에 달했다. 이 선교 후원금은 전주대 학생들의 장학금과 선교 및 체험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주제신교회 이희준 담임목사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목회자들을 비웃는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주대에서 학생들을 섭외하며 캠퍼스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는 그 동안 지역교회와 함께 캠퍼스 선교



전주대학교는 최근 대학본관에서 갈산온혜교회 등 전북지역 59개 교회와 가족교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 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함께 동역해주시는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을 섭외하며 캠퍼스 사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올 예비군 우수 부대장 표창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유진섭) 와 제35사단은 28일 2018년 예비군 우수부대장 표창과 예비군 정기 감사 강평회를 가졌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예비군 지휘관과 읍·면

·동 방위지원본부장, 35사단 감사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표창은 내장상대장 이병상 씨, 농소돌대장 양만우 씨가 수상했다. 또 철보·산내면대장 김유철 씨, 정우·덕천·이평면대장 이도경 씨가 35사단장 표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 정읍시 공무원 김의경(입암면 행정 6급)씨가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헌신한 공로로 35사단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진장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28일 장계 전통시장 등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설정해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장계면 일원에서 일제히 실시했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군민이 실제 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우선을 생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군민이 소방차에 직접 탑승 후 소방관과 함께 실제 출동훈련을 하면서 소방차 양보운전에 대한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서, 현장방문 피해자보호관 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청문간사관실(과장 조현숙)은 지난 20일부터 18개 구·군·읍 출소를 현장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임무'라는 인식전환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해 피해자보호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을 신설,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경찰서는 각 기능별 피해자 보호관 28명을 지정하고 팀장급 자리에 피해자보호관 명牌를 부착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 스스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치과대학, 2018 진로콘서트 열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치과대학이 '2018년 진로콘서트'를 지난 25일 제2차 학관 손의수홀에서 열었다.

치과대학 제14기 동문 및 제35기 졸업준비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콘서트는 '선배님 질문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도권과 지방 전문의와 일반인,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의사 삶을 보여주는 6명의 동문 선배가 멘토로 참가했다.

1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들은 사전 조사 및 오픈 SNS를 통한 질문 등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으며, 진로 선택의 시기와 요소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호영 멘토는 "이벤트와 과도한 할인, 사무장 치과 등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며, 선후배 및 동료와 협력을 통해 올바른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수(치의학과 4년) 졸업준비위원장은 "치과의사의 길을 앞서 걸어오신 훌륭한 선배님들의 발자취에서 신선했던 자극을 받았습니다"며,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수사진 활용·중식제공 봉사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우근)는 28일 남산미을 어르신 20여분을 모시고 장수사진 특화사업을 펼쳐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다.

장수사진사업은 당시 멋져봉사대(대표 최창의)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며, 만 75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마다 옷매무새 정리와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훈영했다. 훈영 이후에는 협의체 위원 및 봉사대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국수를 점심식사로 대접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내내 어르신들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이날 훈영한 장수사진은 애자에 담아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장수사진 활용으로 어르신들의 민수무강을 기원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간사실에서는 내부고객들의 근본적 비위 예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사랑의 순편지 보내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어 직원과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비위가 발생되면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분등 상용한 신분상 불이익을 해왔으나 전통적인 업벌만이 정답이 아닌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평상시 직원들과의 솔직한 내부 소통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경찰서장과 청문간사실이 주관이 되어 소속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순편지'를 작성 우송 교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 적극 추진 중이다.

순편지를 받아 든 직원들은 하나같이 '옛날 학창시절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되는 편지글을 오랜만에 접해보게 되어 감동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